

나주 축산물공판장 혁신산단에 신축

농협경제지주에서 운영하는 나주 축산물공판장이 신축이전 건축허가를 최근 취득했다.

기존 농협 나주 축산물공판장이나주 혁신산업단지내 최첨단 위생설비를 갖춘 호남 최대 규모의 축산물종합유통센터로 새롭게 태어나게 됐다.

현재 가동 중인 공판장은 지난 1992년 5월 준공 이후 25년이 경과하면서 건물과 도축·공판 시설 등의 노후화로 효율성이 떨어진다 지적을 받아왔다.

전국 4개 축산물 종합유통센터 가운데 가장 오래된 시설로 타 지역으로 이전신축 등이 논의돼 오다 지난 2016년

668억원 투입 최첨단 도축 시스템 구축

농협중앙회 4월착공 2019년 준공예정

12월 전남도·나주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1년여 동안 부지 매입과 설계 작업을 진행해 왔다.

농협중앙회가 공판장 이전지로 결정된 혁신산단은 서해안을 비롯해 호남고속도로 등과 가까운 사통팔달의 교통요지다.

농협은 2월 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하고 4월 착공해 시험가동을 마친 뒤

2019년 연말까지 혁신산단 내 7만1,139㎡(2만1,519평) 부지에 668억원을 들여 축산물공판장을 준공할 계획이다.

신축 축산물공판장에는 농협이 수출 전지까지 마련과 축산물 유통 선진화 기반 구축을 위해 최첨단 위생설비 등을 갖춘 예정이다.

신축 축산물 공판장의 1일 최대 도축 능력은 소 180마리와 돼지 900마리가

목표다.

이 공판장은 도축시설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호남지역 최초로 친환경 동물복지형 축산물종합유통센터로 건립될 예정이다.

건물 옥상에는 친환경 태양광발전시설과 녹지 휴식 공간이 조성된다.

특히 기존 도축장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악취'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 시스템'과 '첨단 공법'이 도입된다.

축산 선진국인 유럽의 최첨단 폐수처리시설을 도입, 지하에 설치하고 악취원을 외부와 완벽하게 격리·차단할 예

정이다. 또 동물혈액 자원화 첨단시설을 도입해 도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제로화 시킬 계획이다.

가축 계류장에도 지붕을 설치해 냄새와 소음을 저감시키고, 가축을 실어 나르는 차량은 적재함이 밀폐된(Wing Car) 트럭만 출입케 함으로써 수송·대기과정에서 발생하는 냄새·소음·오염을 차단할 계획이다.

공판장과 지척에 있는 지원시설 부지에는 협력업체들이 입주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양질의 식육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서미애 기자

주목! 이사람



박태선 농협 전남본부장은 5일 8층 소회실에서 열리는 '시군지부장회의'에 참석한 다.



김일수 농협 광주본부장은 2일 광주·광주비아·분양농협 열리는 '광주·광주비아·분양농협 정기총회'에 참석한다.

소상공인 일자리안정자금 정부 "세부담 영향 없어"

소상공인들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아도 세부담에 영향은 없다고 정부가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사업자가 일자리안정자금으로 지원받는 금액은 사업소득 계산 시 수입금액에 포함되지만, 같은 금액의 인건비가 필요경비로 처리되므로 사업자의 소득세 부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을 지난해보다 16.4% 높은 7,530원으로 인상하는 대신, 이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간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로,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1인당 최대 13만원의 지원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게 전제조건이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오창렬, 이하 '진흥원')은 오는 6일 나주 혁신도시 호탈코어에서 '2018년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1일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진흥원이 추진하는 문화산업·ICT·SW분야 콘텐츠 개발, 사업화, 마케팅 등 분야별 지원사업의 추진방향과 일정 등을 쉽게 설명해 기업들의 이해를 높이고 사업신청에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설명회 앞에는 키즈 콘텐츠 전문기업 캐리소프트 권원숙 대표를 초청, 기업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도 진행한다. 2018년도 진흥원 지원사업 설명회 관련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www.jc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당일 현장접수를 통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중기중앙회 생활용품산업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1일 국회 이훈의원원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본관 중기중앙회에서 '제15차 생활용품산업위원회' (공동위원장 정규봉, 이등재)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국회 이훈의원원을 비롯하여 정수기, 문구, 가구, 완구, 귀금속 등 생활용품 관련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과 관계자 15명이 참석해 업계 주요현안을 청취하고 애로사항을 함께 논의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국회 산자위 법률안소위에 계류 중인 '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 제정(안)에 대한 관련업계 의견을 비롯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공공조달 구매가격 인상추구, 완구류 KC 정기검사제도 폐지 등 업계 주요 애로사항에 대해 건의했다.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최근 광주 송정역시장을 찾은 시민들과 주변 상점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알리기 위한 가두캠페인을 실시했다.

국민연금 광주, 일자리안정자금 가두 캠페인

두루누리 보험료·일자리안정자금 제도 홍보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윤우용)는 최근 광주 송정역시장을 찾은 시민들과 주변 상점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알리기 위한 가두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되면서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장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가입혜택을 늘리기 위한 '두루누리 보험료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에 송정역과 송정역시장 일대에 있

는 10인 미만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두루누리 보험료와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캠페인을 진행하고, 각 사업장들을 현장 방문하여 4대보험 가입 및 지원제도에 대한 신청방법을 안내했다.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은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 최대 90%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를 지원 하는 제도이고,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최고 13만원까지 지원 해 주는 제도다.

특히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을 잘 준수해 4대 보험에 가입한다

면 보험료 지원과 더불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윤우용 본부장은 "4대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임금 취약계층의 근로자들이 많다. 올해는 많은 사업장들이 4대보험에 가입해 보험료 지원과 일자리안정자금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공단에서는 4대 보험 신청에 대한 현장홍보를 통해 많은 영세사업장과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서미애 기자

광주은행, 직원채용시 공정성 강화

재발 방지 안전...수사기관 조사 성실히 임할 터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은행권 채용비리 검사 잠정 결과 및 향후 계획'에 관련해 '임원이 해당 자녀의 2차 면접에 참여한 사례'가 1건 있었음을 인정하고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1일 밝혔다.

광주은행은 2015년부터 채용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신입행원 채용시 대학추천제 방식을 적용, 소속(출신) 학교에 전형의 최초 과정을 맡김으로써, 채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부 청탁의 가능성 및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제거했으며, 면접방식도 블라인드 방식을 도입해 기존 대비 공정성을 매우 강화해 운영해왔다.

따라서 광주은행 임직원 자녀도 해당 학교의 추천서 없이는 전형 과정에 참여할 수 없고, 다른 일반 지원자들과 동일한 경쟁을 거쳤다.

이러한 광주은행의 공정성 제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5년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광주은행 임원이 해당 자녀의 2차 면접위원으로 참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은행 내부에서는 이 사실을 채용절차가 끝난 이후에 인지해 당사자인 임원과 인사담당 부장을 전보 조치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반조치를 마련했으며, 현재 이들은 모두 은행을 퇴사한 상태.

/서미애 기자

aT, 경조사용 신화환 작품 전시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여인홍)는 서울 양재동 aT센터 1층 로비에서 2일까지 다양한 경조사용 신화환 작품 전시회를 개최 중이다.

이번 전시회는 국내산 생화를활용해 전문 플로리스트들이 제작한 생활 보급형 경조사용 신화환을 선보이며, 소비자들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화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격대의 신화환을 전시한다.

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는 선물 및 경조사용 화환의 경우 모두 개당 10만원까지 주고받는 것이 허용됨에

따라 높아진 화환업체의 기대감을 충족시키고, 국산 꽃을 활용한 신화환이 다소 왜소하고 불품없다는 일부 지적이 있어 이를 동시에 해소하고자 신화환 상용을 품격 있는 꽃 화환의 시작으로 삼기 위해 이번 전시회가 기획됐다. 우리나라 꽃 소비는 약 85% 정도가 경조사용으로 편중돼 있는데, 낮은 품질의 수입산 꽃, 인조 꽃, 재사용 꽃 등을 섞어 만든 화환이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의 불신을 초래하고 화환을 보내는 이의 마음마저 왜곡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유형동 기자

한전, '통합 서비스 포털' 개설

실시간 전력 사용량·요금 조회 등 가능

한국전력은 다양한 전력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 포털'을 오픈했다고 1일 밝혔다.

'통합 서비스 포털'은 여러 곳에 분산된 다양한 전력 서비스 시스템 접속 경로를 일원화하고 통합 로그인을 구현해 고객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정보 제공 창이다.

제공 서비스는 실시간 전력 사용량과 요금을 조회할 수 있는 '파워플래너'와 전국 전력수급 현황과 지역별 전력소비 현황을 보여주는 '국가전력자원맵', 전기차충전소 안내 등 길찾기를 제공하는 'EVC(전기차충전서비스)' 등이다.

통합 서비스 포털은 인터넷 한전 사이버지점 상단 통합포털 메뉴에서 바로 접속할 수 있다.

한전은 통합 서비스 포털 오픈 기념으로 '사용 후기 남기기'와 '방문자 랜덤 이벤트'를 진행한다.

사용 후기 남기는 20명을 추첨해 3만원권 모바일 기프트콘을, 방문자 랜덤 이벤트도 20명을 추첨해 5,000원 권 모바일 기프트콘을 증정할 예정이다. 당첨자는 오는 3월22일 한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익산국토청, 안전 최우선·지역경제 활성화

호남지역 국도건설공사 관계자 간담회

익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김철홍)은 최근 익산청 회의실에서 호남지역 국도건설사업 현장 관계자들과 함께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 재정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자고 다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라남·북도에서 진행중인 국도건설사업 현장 공사관리관, 책임감리원, 현장대리인 등 1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안전사고·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건설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해빙기대비 안전대책 수립·시행에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 정책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가 본격 착수에 맞춰 현장 내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 실시, 현장 주변 여건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 대책 수립했다.

특히, 잇단 대형화재(충북 제천, 경남 밀양) 발생에 따라 국도건설사업 현장 내 화기 사용에 주의 및 화재 취약장소 등에 철저한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최근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인해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수시로 실무점검회의를 실시하고, 추가집행사업을 발굴하고 효과적 장 내 화기 사용에 주의 및 화재 취약장소 등에 철저한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서미애 기자

대우위니아 에어컨 예약판매

캐시백·사은품 최대 60만원 혜택 제공

대우위니아가 2018년형 위니아 에어컨 예약판매에 들어갔다.

대우위니아는 4월 9일까지 2018년형 위니아 에어컨 예약판매를 실시하고, 최대 60만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전국 '위니아 딥채 스테이'와 하이마트, 전자랜드 등 가전양판점과 할인점, 백화점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 예약 구매하는 고객은 모바일 상품권 또는 '위니아 가습기청정기'와 '위니아 크린 드림세탁기 12kg' 중



고객에게는 최대 50만원 캐시백을 제공한다.

4월 30일까지 사전 구매해 고객에게는 집에 에어컨을 설치해줄 예정이다.

2018년 위니아 에어컨은 바람을 측면 방향으로 내보내는 '돌레바람' 기능을 통해 사용자에게 찬 바람을 직접 쏘지 않고도 냉방이 가능하다.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을 달성해 전기료 부담을 줄였다.

/서미애 기자

이외에도 ▲돌레바람 스탠드형 에어컨 프리미엄 모델 구입 시 모바일 상품권 최대 35만원과 가습기청정기(택일) ▲벽걸이에어컨을 추가한 19평 스탠드형 에어컨 프리미엄 모델 구입 시 모바일 상품권 50만원과 드림세탁기(택일) 등의 혜택을 마련했다.

가전양판점에서 예약 구매하는